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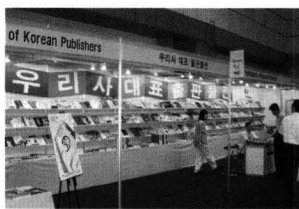


사진은 2002 서울국제도서전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6월 4일부터 9일까지 COEX 1층 태평양관에서 열린다. 국내외 138개 출판사(국내 97개사, 해외 41개사)와 관련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도서전은 '책을 펼치면 꿈이 열린다'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독자, 출판사, e-book 관련업체, 국내외 에이전시 등 지식문화에 관심을 가진 계층의 큰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연인원 20여만 명이 전시장을 찾고 저작권상담이 1천 5백 건에 달하는 등 책과 사람과 정보가 만나는 지식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이번 도서전은 국내 도서 전시장을 비롯 외국 도서 전시장, 관련 단체별 종합관, 우리사 대표 출판물전, 전자출판물 전시장으로 꾸며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특별전과 <베스트셀러 100년> 특별전도 열린다. 외국 도서 전시장에는 도서 수출구매와 출판물 교역 활성화에 지장이 없도록 통역이 상주하며 국내외 관계자들의 원만한 교류를 도울 예정이다. 잡지, 과학기술, 종교, 학술, 유통 분야 등 국내외 10여 개 단체관이 참가하는 종합전시장과 변화하는 출판경향을 상징하는 전자출판 전시장도 마련된다. 디지털 콘텐츠와 책의 만남을 상징하는 e-book, e-텍스트, 온라인북, 파일북 등 다양한 전자출판물들이 소개되는 이 전시를 통해 출판산업의 미래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도서전에는 일반독자와 출판기획자 디자이너로부터 주목받은 155종의 아름다운 책들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독일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수상작들을 소개하는 특별전에서는 현재 북 디자인의 경향과 미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출판 역사를 통해 사회상을 엿보는 기회도 주어진다. <베스트셀러 100년 전>에서는 그동안 국내 독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았던 베스트, 스테디셀러가 전시되어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 예정이다. 이 밖에 SBS 현장 생방송이 진행되고, 참가사별로 작가사인회, 저자와의 대화 등이 펼쳐져 초여름의 책 축제가 열기를 떨 전망이다. 2003년 서울국제도서전은 단체관의 개별참가사까지 포함할 경우 약 1,500개의 출판사가 참가하게 된다. 이같은 행사에 출판사, 도서수출입사, 서점, 유통업체 등 출판계를 포함해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한편, 문화방송·조선일보·COEX와 함께 서울국제도서전을 공동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정일 회장은 "독자들이 쉽게 책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면제하고, 전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람객 중심의 공간구성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판관계자와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김청연 기자